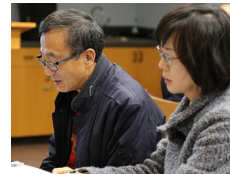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3
Mar. 2019
Vol.7 No.2

- 임직훈련
- 교우 동정
- EM / 교육부 소식
- 청년부 소식 / 간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2월 28일 밸리채플에서 있었던 금년 첫 주안에만남에 참가한 새가족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다. <사진: 양영 기자>

‘주안에 만남, 주안에 행복’

■ 새가족 만남

지난 목요일(2월 28일)에는 15차 주안에만남이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가슴 벅찬 새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새가족극에서는 빈틈없이 준비한 손길만 보아도 섬김과 사랑이 차고 넘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시간 전에 도착하신 새가족들께서는 정갈하고 아늑하게 꾸며진 방으로 들어오시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은은한 조명 아래 차

려진 야채꽃 센터피스와 샐러드, 크랩차우더 스프, 갈릭빵, 그리고 감자로 시작되어 스테이크와 새우의 메인코스, 과일, 식혜, 양증맞은 케이크, 커피 등의 후식과 함께 즐긴 저녁만찬이었다. 최혁 목사가 직접 새가족들에게 일일이 서빙을 해 주셨다.

식사 후, 고홍일 목사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이... 사랑한다 내 딸아" 로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곧이어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과 교회소개가

있었다. 주안에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목회철학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주안에교회의 구체적 사역 방향은 1)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2)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용사로 만드는 교회 4)평신도 사역 훈련시키는 교회라는 말씀과 함께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 하셨다.

| 임용자 기자 (관계기사: 5면) |

■ 임직자 훈련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자

2019년 주안예교회는 28명의 피택 안수집사와 60명의 피택 권사가 새로이 임직을 앞두고 훈련을 시작했다.

한달에 한번씩 10 개월에 걸쳐서 진행될 훈련은 최혁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끌어가고 계시며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새벽예배 후에 MP채플에서 진행된다.

그저 불려지기위한 직분자가 아니고, 권사는 전도와 봉사 그리고 권면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여성 최고의 직분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또한 안수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식의 분별력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으로서 교회의 발전과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새로이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주안예교회가 더욱 믿음위에 강건해 지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세상을 변화 시켜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어 지기를 소망해 본다. | 오희경 기자 |



■ 주안에라이프

새학기 새로운 만남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의 마지막주 수요일에 봄학기 주안에라이프가 개강되었다. 20분의 전문강사님들, 10여명의 키친봉사자들, 새학기가 시작되어 입학하신 여학생, 남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입학감사여배와 함께 12주간의 수업이 일제히 시작되었다.



■ 사역국장 모임

알찬 봉사 각오 다져

2019년 주안예교회를 이끌어갈 사역국장들과 담임목사님의 만남이 2월 한달동안 각 채플별로 이어졌다. 각자가 맡은 사역국에 대한 한해의 계획과, 보충해야할 점 등을 나누면서 올 한해에도 최고의 봉사를 다짐해보는 든든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사진: 최호기 기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 주안예일꾼/ 최호기 집사(MP)

교회 역사 사진에 담아

우리의 지난 인생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건 그 순간을 담은 추억의 사진입니다.



주안예교회의 모든 행사 또한 그 사진을 보면 생생히 공감할 수 있으니 참으로 중요한 사역중에 사역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주안예교회를 앵글에 담은 집사님이 계시니 바로 최호기 사진국 팀장님이십니다.

최호기 집사님은 사진 전공자로서 일간지 사진기자로도 활약했던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월호 주안예신문 표지사진을 장식하므로 주안에 사진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안예교회에 출석한지는 약 6개월인데도 교회사역이 아직은 이르다 생각하지 않고 섬겨주니 힘이 됩니다.

교회의 많은 행사와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집사님, 주안예교회 신문을 통하여 멋진 활동을 기대합니다.

| 박경숙 기자 |

이예스더 권사 (MP) MP채플을 섬기고 계시는 이예스더 권사님께서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아프리카와 터키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감당하시는 사역중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여자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음행, 바른 믿음의 여자의 태도를 영어로 강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땅에도 복음이 뿌리내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시작되는 복이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노재덕 집사, 노현순 피택권사(벨리) 벨리 채플을 섬기고 계시는 노재덕 집사님과 노현순 피택권사님의 가정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아드님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이 항상 말씀 안에서 사랑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 안건우, 정지혜 집사(MP)

하준 (Joel) 이의 돌을 맞이해서... 하준이를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설레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하준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준이가 이룰처럼 크신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영광돌리는 삶 되길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 안건우 & 엄마 정지혜



곽재은, 김혜민 성도 (MP) 곽재은 성도와 김혜민 성도의 가정에 가족이 한꺼번에 두사람이 불어난 아주 기쁜 소식이 있다. 지난 2월 6일 어여쁜 딸 쌍둥이가 엄마 아빠와의 첫 만남을 가지며 힘찬 울음을 터트렸는데 "하늘"과 "나라" 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교를 시작한 복덩이들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목자 소감/ 전혜숙 피택권사(벨리15목장)

"억지로 순종해 맡은 직분... 첫 모임부터 은혜가 넘쳐"

처음 15목장을 섬기게 하셨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 처럼 마음이 무거웠지만, "NO" 라는 불순종의 대답을 차마 하고 싶지 않아서 기쁨이 아닌, 억지로 순종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처음 시작한 목장 모임 부터 그 날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주신 은혜와 회개를 함께 나눌 때 또 다시 은혜를 받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지친 몸과 영혼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체들과 삶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쉴 수 있게 되니 너

무 감사했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믿음을 사랑으로 나누며, 함께 지어져 가는 15목장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채워가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저희 15목장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동역자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게 하신 15목장의 각 가정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다 성취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15목장의 각 가정에 역사하시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 1 : 2)



■ 주안에 한글학교(벨리)

부모들이 목장모임 갖는 시간 자녀들은 한국어 ‘열공’

주안에 한글학교는 2018년 가을 학기부터 김수정 교장선생님의 선도아래 힘차게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주안에 한글학교는 벌써 2학기를 맞이해서 1학기 부터 같은 뜻을 품었던 선생님들과 또 새로이 합류하신 몇몇 선생님들과 35명의 학생들이 매 주일 열심히 한글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상투적인 한글 교육의 목적, 즉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배우며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안에 한글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님들이 주일 점심식사 후에 목원모임 시간에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IC KIDZ 에서 야심차게 내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주안에 한글학교는 한글 교육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와 노래 그리고 여러가지 탐구활동을 동반



한 독서지도를 통해 책속의 내용을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인 독서를 통해 지적능력의 발달뿐만 아닌 감정능력의 발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해가 거듭할 때마다 창대해지리라 믿습니다.

■ 베들레헴국(벨리)

맛있고 신선한 빵 인기만점

지난 10일에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는 작은 섬김이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베들레헴(국장 김준익 장로, 팀장 전의성 집사)이 문을 열게됨에 따라 성도님들께서는 맛있는 양질의 빵을 드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날은 특별히 최혁 목사님 요청으로 전교인에게 무료커피를 브니엘에서 제공하여 기쁨을 더했다. 250개를 만들었음에도 2주에 배 후에는 빵 구경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다음주부터는 양을 늘리겠다는 김준익 국장님의 약속이 있었다. 맛있고 신선한 빵을 공급해 주실 베들레헴 사역국 감사합니다.



■ 브니엘 봉사팀(벨리)

예쁜 색실로 뜨게질... 바자회도 계획

매주 주일날, 브니엘의 가족들은 이른새벽부터 맛있는 커피를 만드느라 종종걸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김으로 하루를 마감한 후 모두 모여 진정한 쉼의 시간을 갖는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가지각색의 예쁜 실로 수세미를 만든다. 좀 더 잘해서 바자회를 하자고도 하고... 재미있고 하나된 아름다운 모임이 매주일 브니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봉사로 섬기는 모든 주안에 가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

| 임용자 기자 |





주안에만남 행사에서 만난 새가족들이 서로 소개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양영 기자)

■ 새가족 소감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예배 설교말씀에 충격

김주창, 이혜운 집사 처음 오게된 계기는 주안에교회 최혁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며 꼭 가보라는 저희 친정엄마의 권유로 한번 와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온 첫날, 목사님 설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지.. 강의인가 약간의 집중력 저하로 해매었지만, 2주차부터 머리에 속속 들어오며 마치 그 설교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쉽게 새기며 목장 모임에서도 곱씹을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을 잘 얘기할 수 있을까..란 목사님의 열정도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짜증 나거나에 상관없이 있는모습 그대로 하나님앞에 나와야한다는것을...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다..라는 팩트가 제 마음속에 영원한 발판이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줍니다.

책 한권이 사람을 바꾼다면, 제 경우엔 목사님의 설교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도전을 받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강헬렌 집사 먼저 다니던 교회를 의무감으로 다니다가, 지난 8월에 주안에 교회를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저 한번만 와야지 했던 걸음이, 한번만 더, 한번만 더를 외치며 프리웨이를 세게나 갈아타며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달간 이교회, 저 교회를 정처없이 다니며 너무 힘들고 슬펐는데, 지난 2월 남편과 아이들이 처음 방문하고 너무 좋아하기에 온가족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운 성도 저의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집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달라고 백일기도 끝에 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40년이 되어 열심히 일하여 잘 살았고 신앙은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않으며 노년을 즐기며 살던 어느날 예기치 않은 암이라는 병이나에게 찾아와 지난 2년의 투병 끝에 이젠 살만하여 산책길을 걷다가 주안에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그토록 다니던 산책길인데 그동안 집사가도 못보고 살았는데 두달전 갑자기 큰 십자가가 보이며 나에게 오는 것 같이 느껴져 난생 처음 믿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전성희 권사 저는 대대로 성당을 다니는 집안이고 저역시 한국에서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우연히 주안에라이프에 오게되었고 거기서 만난 주안에교회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 등록하게 되었으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재미에 푹빠져 외로운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요한, 전유정 집사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기도 중에, 아는 집사님의 권유로, 주안에 교회로 오게 되었고 아내는 얼마전 예배에서 독창자로 쓰임을 받았고, 저 역시 베이스 연주자이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김기수 집사 저는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식도 교회에서 했기에, 철저히 믿음생활을 하며 살 줄 알았는데, 8년간이나 부부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4년전 우연히 주안에교회 CD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안에교회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계단 내려오는 것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 지난 30년간의 잘못된 틀을 깨고 주안에교회에 등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권사 이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새벽예배와 주중예배를 주안에교회에서 드리고 마침내 주일예배 역시 이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되어 이제야 늦게나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 EM



‘Passion and Hunger for God's Word...’

Shalom! For quite a while, I had yearned to join the English Ministry (EM) at ICCC. So, on February 3rd, I attended the service for the first time.

The EM was made up of 2nd or 3rd generation Korean-Americans, non-Koreans, and IC Youth worship leaders. When I entered the service hall, it was surprising to see just a handful of worshippers. How could this be? Some members explained that the EM group had undergone several changes in the pastoral leadership. This resulted in many members losing their faith on whether the church could nurture their spiritual needs.

Under the guidance of Pastor Sam, however, things were turning around

for this group. Pastor Sam wanted to instill a new vision which was to be “glued in Christ” through various training sessions such as Abundant Life Bible studies. He recognized that many worshippers were exhausted as well as frustrated during the leadership transition and the relocation of the church.

Now, with some stability, the focus will be on connecting to a meaningful fellowship rather than just serving as volunteers in the kids programs or struggling to understand the sermon in the Korean service. Their numbers may be small, but their passion and hunger for God's word are real. The time has come for EM to flourish in faith this year. | Simon Cho 기자 |

■ Reporter's Cornerstone

Do you know what the best gift for your children is? Think about it for a second? Is it knowledge? Wisdom? Material Wealth? Well, someone once said, “it is the love that you give or show to your spouse.” Why? Because you can teach your children about respect, tolerance, patience, kindness, forgiveness, etc. When you think about it, the list of “gifts” you pass on to them seems lik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at do you think? Try it for a week or even a month.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on how it has impacted your life by contacting to Pastor Sam via Kakao Talk or email. Pastor Sam is leading a small group bible study regarding a new topic, “How to strengthen your faith.” It is such a magnificent time seeing how everyone is sharing past experiences, which are affecting his or her present lifestyle. Pastor Sam is always working hard teaching others how to be a true Christian by studying the bible. His success is attributed to keeping strict rules on attendance and homework while providing a comfortable setting. Every week, he “prepares” food and deep, heart-touching lessons to help attending members to improve on their faith in God. If there are any non-Korean Christians in the MP chapel interested in joining him, Pastor Sam is thinking of opening another group on a different day. However, there is a minimum of 3 members in a group to start the fellowship. If anyone is interested, please contact Pastor Sam.

| Simon Cho 기자 |

샬롬! 오랫동안 갈망하던 주안예교회 (MP)의 영어예배(EM) 2월 3일 주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M(English Ministry)은 한인 2세, 3세, 영권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저도 그룹에 포함되요) 영어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EM 룸에 들어서 자마자 저는 소수의 열성적이고, 뜨거운 예배자들을 볼 수 있었고, 제 가슴도 처음 대학에 들어가 청년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때로 돌아 간것처럼 흥분되면서 뜨겁게 뛰기 시작 하는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다른 많은 교회들 안의 EM 들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갈수 없고 1세대와의 갈등 등으로 신앙마저 잃게되는 안타까운 일들로 점점 그 규모가 작아지고, 존재여부 자체도 희미해져 가는 현실로 실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희 주안예교회의 EM(MP)은

2019년도 부터 이성우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 새로운 주 안에서 삶의 비전을 품고 주안예살[Abundant Life]을 통한 성경연구 등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붙임"바 되는 고된 훈련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께서 EM 안의 젊은 청년들이 ICCC 안에서 중, 고등부, 영, 유아, 유, 소년부 등에서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거나 통역이나 번역일 등을 통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의미있는 헌신을 함으로, 온전한 예배 드림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셨습니다.

EM은 아직 숫자가 적지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한사람 한사람이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에 EM은 올해 큰 성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ICY Praise Night & Broomballing

찬양 · 말씀 · 친교... 'Thank God It's Friday'

2/22 금요일 오후 8시, 늦은 저녁이이었지만 뜨거운 열기와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벨리채플 교육관을 가득채웠습니다.

벨리와 MP ICY가 모여 두 손을 올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학교, 일, 숙제,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 없었던 일상의 끝에는 그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원했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Friday Night'이 였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이 끝나고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중요성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책에서 나오는 무섭고 딱딱한 '신'이 아닌 우리와 더 가까워 지고 싶어 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친구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분과 더 친밀해 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주제였습니다. 또 그 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Training'을 받아야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과 자신이 유지해 왔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선하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대해 자신은 마음 아파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아이들은 쉽게 예배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옆드려 회개하는 영혼들의 모습에 ICY의 모든 전도사님들과 리더들이 되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 이 세상 그 어느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의 밤' 후에는 Simi Valley에 있는 아이스링크로 이동하여 'Broomballing' 아우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11:30pm 부터 아이스링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빙상위에서 스틱을 들고 뛰어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ICY란 공동체에서 피어나는 우정이 단순히 1-2년 안에 끊어져 버릴 인연이 아닌 -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들을 '사랑의 띠' 그리고 '성령의 띠' 안

에서 묶일 수 있는 - 그래서 단순한 친구가 아닌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밤이었습니다.

ICY 2019년도 기도제목: 1. 'Gethsemane' Quite Time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기를. 2. ICY 둘로스 리더들이 주일 만이 아닌 평소 일상의 삶에서 항상 자신이 맡은 양떼들을 기억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3. ICY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기를. 4. 비록 채플은 다르지만 거리를 뛰어넘은 'Unity' 안에서 MP와 벨리 학생들이 서로를 향한 희생과 배려를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 김민재 전도사 |

■ EM Abundant Life

'to explore, share, and grow in Christ'

Starving for God's word or a true Christian fellowship? Well, wait no more! Abundant Life Bible study is the key. Pastor Sam has created an amiable atmosphere that is safe for you to explore, share, and grow in Christ. Although there are strict rules regarding attendance and homework, members who attend enjoy warm food, deep-meaningful lessons, and humorous conversations. It is an opportunity that anyone can die for....get i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Pastor Sam.



| Simon Cho 기자 |

2월 11일 영어권[EM]의 주안예삶[Abundant Life]이 저녁 8시 이성우 전도사님택에서 시작 한다는 기쁜소식에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과 4명의 청년들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집중 하면서도 간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에는 웃기도 하며 시종 일관 좋은 분위기 였습니다.

EM 주안예삶에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 잊을 수 없는 은사님

제자 위해 무릎 꿇은 사랑

1973년 서울에서 마지막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고등학교를 입학한 필자와 조규남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학을 가르치시고 학생주임을 평생토록 맡아 수고하신 선생님을 다시 만난건, 학교를 졸업한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2004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동창모임에 모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옛 이야기도 듣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께서 들려 주셨던 수많은 이야기 중 감명을 되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유독 가정형편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말썽을 피우거나 대형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사건은 학생주임의 몫이 되었지요. 수 많은 사건중에 한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한 우리학교 고3 학생이 바로 옆동네 여자 상업학교에 다니는 고3 여학생을 딱 임신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학생은 퇴학처분이 될거라는 데에는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동정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늘 학생들에게는 호랑이 같고 엄하셨던 선생님은 이때부터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 합니다. ‘퇴학만은 절대 안됩니다’ 당시에 퇴학은 그 삶의 인생에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교무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끈질긴 설득 끝에 1년 정학처분으로 매듭짓고 1년 후에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상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학교 학생주임 선생님을 찾아가셨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미 여학생을 퇴학처분 하는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냉랭한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임신 했으니 그럴만도 했겠지요. 선생님은 끝내 그 학생주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자식(제자)이 잘못했으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퇴학시키면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저 아이들을 결혼시키겠습니다. 퇴학만은 꼭 막아주십시오. 선생님의 제자 사랑에 감명을 받은 여학교 학생주임 선생님의 도움과 노력덕분에, 여학생도 1년 정학을 받고 나중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이 두사람은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졸업후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여학생은 공무원이 되었고, 지금도 생명의 은인인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 같지만, 신앙인인 저에게는 보통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자문합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나는 어떠한가? 작은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지않는가?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책도 합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생명 소감

말씀으로 신앙을 정립하는 계기

이 소감문을 쓰면서 주안에 생명을 배웠을 때 정리해 두었던 노트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서 배울 때 은혜를 떠올리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주안에 생명 강의를 참석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큰 변화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잘 정립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 깨달지 못했던 말씀을 더 깊이있게 알게 되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이었는데 내 긴 믿음의 여정은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개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생각에 새 아침이 오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먼저 움직여 말씀을 보게 된다. 이 마음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

에 들어오셔서 회복 시켜주신 마음이라 믿는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소망하시고 행하시는 공의의 속성지.정.의 중 그 어느것 하나라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한 가지 더 감사하며 말씀을 읽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이 말씀 안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내 궁금증을 아시는것 같이 꼭 집어 속 시원히 풀어주셨다. 자칫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수도 있는 부분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주안에 생명2 그리고 주안에 빛 에서는 말씀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다가올지를 기도하며 기대해본다.



김선자 권사(벨리)

백지에 그림 채우듯 말씀이 쑥쑥

저는 궁금한 것이 많고 "왜?" 라는 질문이 많은 성도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화와 같은 비유일 것이라 생각한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고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 수궁하기가 어려워 전에 저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못한채 형식적인 예배를 "보는 것" 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말씀이 정말 좋다면 한번 와서 들어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따라 놀러가듯 와본 주안에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기하리 만큼 저의 마음을 아시는 듯함에 놀랐고 이후로도 여러 훈련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저의 궁금증에 답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해 교회를 다녔지만 모르고 있었던 어떠한 믿음의 아주 기초와 기본부터 차근차근 백지가 채워 지듯이 스폰지에 물이 빨아드러지는 느낌처럼 말씀이 흡수되기 시작했고 꼭 제가 물어봐서 답해주시는것 같

이 제가 평소에 가졌던 다소 엉뚱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좋은 말씀이라도 제가 느끼고 깨달아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설사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도 저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면 "나의 말씀"은 되지 못한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는데 주안에 생명은 마치 저에게만 말씀하신다는 착각이 들만큼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알게해주셨습니다. 아직 저의 믿음은 쉽게 도전받아 삶으로 다 적용되지는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단계에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안에 생명을 통해 말씀으로 단단히 훈련받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윤혜수 권사(MP)



요리경연 · 즐거운 게임 통해 서먹했던 분위기 훈훈

■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아우팅

지난 2월 10일(주일) 오후 3시 30분, MP 예배처소에서는 코람데오(국장 민에스터권사) 전체 아우팅을 가졌습니다.

MP 와 밸리채플에서 모인 30여명의 한어 청년부 성도들은 고웅일 목사의 사회로 1부 모임과 기도회를 잠시 가졌는데, 2019년도 표어로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부의 목표는 (1)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청년부가 된다. (2) 서로 사랑함으로 연결된 청년부가 된다. (3)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청년부가 된다 로 정하였습니다.

1부 순서를 마친 후 바로 친교실로 이동하여 2부 순서를 가졌는데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그 동안 함께하지 못하여 서먹서먹했던 사이를 헐고자, 여러 청년부 성도들을 골고루 섞어 팀을 만들었는데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층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습니다.

2부 순서로는 모든 성도들을 5개팀으로 나누어 요리경연대회를 하였는데, 모든 음식 재료와 버너, 양념, 조리기구등은 국장이신 민 에스터 권사님과 올해부터 새로이 원군



으로 합류하신 임혜신 권사, 문수경 피택권사 그리고 레베카 이 집사님이 손수 장을 보시고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웅일목사님의 간단한 소개 및 진행방법과 함께, 과자 손 안대고 먹기 게임으로 순서를 정하고, 35분간 주어진 시간에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팀원들은 하나가 되고 또 합심하여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이 완성한 오늘의 요리를 소개해 볼까요...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궁중떡볶이, 카레라이스, 파스타.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입니다. 그럼 맛은 어땠을까요? 심사위원장이신 고웅일목사님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고민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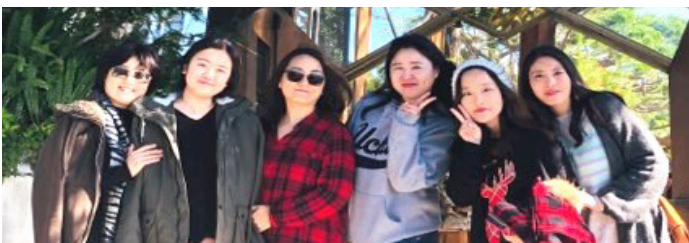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맛있게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요리대회를 마친 후에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밥과 부대찌개와 함께 자신들이 만든 음식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도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답소를 나누는 등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코람데오 청년들이 앞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밸리 청년부 아우팅

밸리 한어청년부는 지난 2월 16일, 토요일에 팔로스벌디스 바닷가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온 후 화창하게 개인 날씨 속에서 하이킹 하기, 바다를 바라보며 청년으로써 꿈키우기 등 현장체험을하고 돌아왔습니다. 안희성 국장님, 윤세희 팀장님이 함께 동행하여 오붓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춘삼월이 코 앞이다. 60년만의 추위라 하지 않던가. 캘리포니아에 대단한 추위를 몰고 왔던 지난 겨울이 밀려나지 않을 것 같더니만, 드디어 순풍의 돛 달고 꽃망을 짙게 드리우며 산천을 수놓을 봄 녀 맛을 채비에 온몸이 다 훈훈해 진다. 순백의 설산이 싫어서가 아니라, 봄 꽃내음이 더 반가워서 일게다.

5번 Fwy 를 북상하며 올라가다 보면 고속도로 양 옆의 농장 언덕배기는 초록빛 봄 녀 들판으로 새단장을 마쳐가고 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린 초록바다는 워싱턴 주 동부의 농촌마을 팔로우즈 농장의 보리밭 언덕이었던 것이다) 그 푸름이 성큼 우리 코앞에 다가 왔더니 신이 날 수 밖에.

101번 하이웨이를 타고 북상 하여 샌프란시스코를 지나 6시간 정도를 더 올라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6개의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만나게 된다.

유레카, 알카타, 클래매쓰, 그리고 오레곤 주 경계 근처에 크레센트시티 라는 도시들이 있는데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밀접한 도시들이다. 나무 속까지 빨강다고 해서 레드우드라고 불리운다. 원래 12종이 있었으나 '메타 세코이아' '세코이아' '코스탈 세코이아' 혹은 캘리포니아 세코이아'라고 불리는 3종만 남아있다.

19세기 중반부터 황금열풍으로 서부개척시대가 한참일 때 서부로 밀려온 노동자들이 채 반세기도 가지 않아 황금열풍은 시들해 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즈음, 이 지역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초기 이민자들과 함께 새롭게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벌목 산업이었다. 무차별한 벌목은 1950년대까지 진행되었다. 약 60년에 걸쳐 환경운동가들과 학자들의 노력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고 보존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드넓었던 레드우드 집산지는 95%의 면적을 벌목으로 잃고 이제 겨우 5% 정도만 남는 처참한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 봄방학 가족여행 추천코스

잇을 수 없는 숲속길 레드우드 국립공원

윤성문 집사

레드우드는 자체 무게가 약 40톤이나 되기 때문에 뿌리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느 수목과 달리 그 뿌리가 길지 않다. 100m 에 이르는 높이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하였지만 숲속에 들어서면 바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 길지도 깊게 뿌리 내리지도 않았지만 이 거목들이 견제한 이유는 레드우드의 뿌리가 옆의 수목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네트 워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레드우드가 죽는 이유중의 한가지는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 죽게 되는데 서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으니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속에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디 이뿐이라, 이 거대 수목이 뿌리를 통해 물을 얼마나 빨아 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했는데, 잠으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다. 코스탈 레드우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서식한다. 그 이유는 지리적 조건이 중요한데 이곳은 바다안개가 아주 짙은 곳으로 유명하다. 나무가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한계는 약 30m 라고 한다. 그러니 100m 나 되는 나무의 윗부분은 항상 수분이 모자라게 될 것이다. 이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안개 작용이다. 레드우드가 물을 밑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 받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 위로부터 공급 받는 은혜,

레드우드가 커다란 모뎀을 보이는 듯하다. 더 재미 있는 것은 그렇게 위로부터 수분을 공급 받기 때문에 나무의 밑부분에서 커 나가는 작은 필요 없는 가지들은 스스로 절지 작용을 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01번 하이웨이를 북상하면서 유레카를 만나기 100마일여 전부터 40마일정도 길이의 'The Avenue of the Giant' 라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도로 양 옆으로 늘어선 레드우드의 위용을 맞볼 수 있는 드라이브 최고의 코스이다. 나무 끝을 바라보면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어디 그 뿐인가, 강력한 피톤치트의 기운으로 하이킹 내내 상큼함을 잃지 않게 한다. 달콤한 숲속의 향내가 코끝을 떠날 줄 모른다.

유레카에서 1시간 정도를 더 북상하여 올라가면 'Tall Tree Grove' 라는 곳을 꼭 방문해야 하는데 -필히 퍼밋을 지참해야 함- 지구 최대 크기의 거목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약 3-4시간 정도의 하이킹 코스인데 꼭 경험해야 할 곳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2000년전의 이끼들도 거목들과 함께 남아 있는 아주 중요한 보호구역이다.

조금 더 북상하여 클래매쓰에 도달하면 'Tour Thru Tree' 라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데, 레드우드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나무속으로 자동차가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믿겨지겠는가. 바닷가를 벗삼아 클래매쓰 해안가 절벽 하이킹 코스도 (왕복 1마일)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이다. 석양의 진한 기운을 받으며 절벽 위 벤치에서의 서정적인 풍경은 낭만시인을 절로 만들어 낼 것만 같다.

약 1시간30분 정도를 더 북상하면 크레센트시티가 나오는데 동쪽 산간지역으로 레드우드 크릭이 흘러간다. 이곳은 11월중순이후부터 코호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북상하는 생태계의 보고인 곳이다.

세계 어느곳에도 없는 레드우드 숲속길, 이 봄이 다가오면 눈길과 마음길을 가다듬어 발길을 옮겨보는 용기를 내어 보아야겠다.

최근에 저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던중, 주안에교회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강하시고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시 기적적으로 살아난 배석원 장로 입니다. 이번 사고로 특별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신앙생활을 시작할때는 청년시절 부터이니 짧은 시간은 아닌듯 하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에도 앞장서서 봉사를 하고 있을때, 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꾸준히 섬긴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더 나은길로 인도하시고 싶었나 봅니다.

신앙생활중에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도움의 손길을 얻었던 간증을 들을 때면 그냥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고 후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한 날 부터 변함없이 제곁에서 동행하여 주셨고 제 앞의 모든일을 평탄케 만들어 주셨으며 저의 등뒤에서 힘이 되시고 큰 버팀목으로 항상 함께하여

■ 회복 간증/ 배석원 장로

꿈길같은 캄캄한 곳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주셨는데, 어리석고 못난종이 그것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그저 다른분들의 간증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평안할때 저의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슬프고 외로울 때 저의 눈물을 멈추게 해 주셨음에도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몸 구석구석이 부러지고 상처가 생겼을 때에도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라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 스스로 감당하려고 애썼고, 삶에 많은 일들과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거나 기도로 간구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워서 처리하곤 했습니다. 이번 사고후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안타까우심 그리고 계획하심이 조금이나마 깨달아져서 아내와 함께 나누기도 했었지요.

매일 수십번을 지나던 길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 아직도 그때의 사고순간은 기억나지 않고, 단지 기억나는 것은 꿈길같은 캄캄한 곳에서 누군가 저를 안아서 살며시 내려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가 아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였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 저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일, 미안한 분들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일 등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회복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모든 곳들이 평소에 아파서 검진을 받고 싶었던 부분들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사고까지 사용하셔서 저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덤으로 연장시켜주신 생명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복의 원년을 선포합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주안에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함으로 벽찬마음을 억누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주안에교회 창립 이후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많은 일들을 모든 분들과 함께 바라보며 감사함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이 시간 생각하며 결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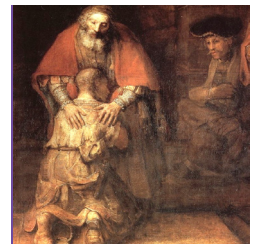
저에게는 5년전 어느 금요일 저녁 주안에교회 저녁예배에 첫 걸음을 딛기까지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고 이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 도박중독자이며,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죄인이요, 자존감을 잃었던 상처입은 자였지만 2009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선물을 경험한 은혜 입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빛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지닌채 살고 있음 또한 정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오래전 추운 겨울밤의 어느날 한 기도원의 산속 컨테이너에 누워 낡은 천장을 바라보며 불순종의 요나를 물고기배속에 가두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많

■ 회복사역국장 소감/ 안진호 집사

용서와 회복의 은혜 10년, 치유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은 회개와 용서하심과 순종의 순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용서함의 뒤에 부득불 약함을 자랑하리라 하던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죄인되고 연약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렘브란트 작 <돌아온 탕자>

2019년 주안에 교회에 회복사역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대가 악하여 동성에 문제, 마리아나 함법화를 비롯한 각종 중독문제, 가정문제, 교회내 관계로 인한 문제 등으로 상처받고 또 다시 죄를 잉태하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전도와 선교로 땅끝까지 달려가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떨어진 자존감은 사명을 향한 발목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백지상태와도 같은 사역의 초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전 3장6절의 말씀을 붙들며 주안에 교회를 지역과 열방을 향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사역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이심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사역의 기초를 세우시고 열매를 맺기까지 친히 일해 주심과 궁극적으로 회복된 영혼들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배려와 관심위에 이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특별히 심화된 목장나눔이 연약함과 상처를 고백하는 회복의 통로로, 말씀나눔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목장모임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 뒷마당 텃밭 관리/ 토마토 가꾸기

떡잎 부분까지 깊이 심고, 하루 한번 물 충분히

빨갛고 탱탱하게 잘 익은 토마토를 따서 한입 베어 먹을 때 달콤하고 짭조름한 그 맛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가정에서 텃밭에 가꾸는 열매채소 중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토마토이다. 키우기가 쉽고 맛과 영양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뽑힐 만큼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는 토마토와 같이 빨간색 열매에는 라이코펜(Lycopene)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항산화 물질로서 우리 신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을 한다. 특히 토마토에 있는 이 성분은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위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K가 풍부해 고혈압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고 한다. 이렇게 가꾸기도 쉽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토마토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 토마토 모종 심기: *토마토는 씨를 심는 것보다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것이 쉽고 빠르다. *3월부터 4월에 심는 것이 오래 수확 할 수 있어 좋고 햇빛이 하루 6시간 이상 비추는 곳이 좋다. *모종을 아래 떡잎 부분까지 깊게 심고, 키가 큰 것은 옆으로 눕히고 중간 부분부터 곧게 세워서 심으면 좋다. *구덩이를 직경 15~20cm, 깊이 20cm 정도 파고 거름흙과 발 흙을 반반 정도 섞은 것을 넣고 심어야 잘 자란다. *모종을 심고 물을 뿌리까지 스며들게 충분히 준다.

2. 물주기: *모종을 심은 후 1달간은 하루에 한 번씩 오전에 준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주되 모종이 커감에 따라 물의 양을 늘린다. *물을 줄 때는 잎 위에 뿌리지 말고 뿌



리 주변 흙에 바로 준다. *물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히 주어 뿌리까지 물이 스며들게 주어야 한다.

3. 거름주기: *모종을 심고 3주가 지나도 잘 자라지 않으면 거름을 주는 데 물을 먼저 준 후 열매채소 비료를 한 포기당 반 테이블 스푼 정도 양을 포기 주변에 골고루 뿌려 준다. *첫 번째 꽃이 핀 후부터 열매채소에 주는 비료나 특별히 토마토에 주는 유기농 비료를 3주~4주에 한 번씩 주면 수확량도 많고 맛도 좋아진다.

4. 관리하기: *모종을 심은 후 1개월쯤 지난 후에 받침대를 세워주어 토마토 포기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받침대는 1m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받침대에 토마토 포기를 고정 시킬 때 좀 헐겁게 묶는다. *토마토 포기에서 잎과 줄기 사이 나오는 새싹(흡지)을 모두 따주고 2~3개 줄기만 자라게 해야 건강하고 열매도 많이 열리게 된다. (위의 왼쪽 사진에서 제일 밑늘어진 작은 잎 두 개 위 양쪽에 난 작은 새싹 둘과 또 그위에 잎과 줄기 사이 V자부분의 큰 원줄기와 잎 사이에 있는 작은 새싹들을 잘라주는 것임) *꽃이 핀 후 사람 머리 쓰다듬듯이 아침에 손으로 잎 윗부분을 2,3번 쓸어 주면 열매가 잘 열린다. (토마토도 사랑을 좋아해요!!)

5. 품종 선택: *병과 벌레에 강한 품종: 셀러브리티(Celebrity) 챔피언(champion), 허스키레드(Husky red), 베타보이(Better boy), 에이스 하이브리드(Ace hybride), *방울 토마토: 대추 토마토, Sweet 100 *크기가 큰 토마토: 비프스테이크(Beef steak) 등이 있다. | 나형철 기자(Flower Factory&Nursery)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o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웅대(기자)

양영, 최희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형을 알려드립니다.